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18:00 (청 년)	21:00 (밤)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사목회의	3월 27일(목) 19:40	강당
제대헌화회	4월 1일(화) 11:00	6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4월 4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4월 5일(토) 17:30	강당

● 다음 주일(3/30) 청소 담당 : 2구역

● 알림

- 4월 1일(화) 10:00 첫 화요일 성시간 및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 4월 2일(수) 첫 수요일 영명축일미사가 있습니다.
- 4월 5일(토) 오전 6시30분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가 있습니다.

●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3/24(월)	3/25(화)	3/26(수)	3/27(목)	3/28(금)
18구역	19구역	20구역	21구역	22구역
3/31(월)	4/1(화)	4/2(수)	4/3(목)	4/4(금)
23구역	24구역	25구역	1구역	2구역

● 혼인 갱신식에 초대합니다.

부부로 함께한 소중한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면혼배를 받지 못한 부부, 또는 부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5월 17일(토) 19:00 미사
- 접수기간 : 3월 17일 ~ 4월 17일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가정생명환경분과장

● 성서 못자리 모집안내

- 일시 : 4월24일 개강(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 장소 : 1교리실
- 교리봉사자 : 이상순 실비아
- 문의 : 김명선 가리따스(010-4725-7790)
- 신청접수 : 성당사무실

● 사순기간 특강 일정 안내

일 시	강 사
4월 3일(목) 19:40	이해동 신부님
4월 10일(목) 19:40	김건중 신부님

● 중고등부 여름신앙학교 안내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
- 일시 : 7/24(목)~7/26(토)
- 장소 : 광주 청소년 수련원(살레시오 수녀회)
- 신청비 : 75,000원
- 계좌번호 : 신한 131-018-587469 살레시오회
- 접수 : 주일 중고등부 회합실 (평일접수는 문자로 문의주세요)
- 접수기간 : 25.3.16 ~ 25.3.30
- 문의 : 손수현 아니시아 010-3977-5449

● 남성구역 및 반장님들의 현황파악

- 2025년도 본당내 남성 구역 및 반장님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3월24일(월)~4월12일(토)까지
 - 조사방법 : 명단양식작성(사무실구비)
 - 제출방법 : 본당사무실
 - 문의 : 김용진 남성구역분과장(010-3777-6088)

● 우리들의 정성(3월 12일 ~ 3월 18일)

교무금	4,935,000원
주일헌금	4,876,700원

- 이복자 5만원 이석구 5만원 오영혜40만원
- 감사헌금 김순애 5만원 권정자10만원 김○○ 5만원
 - 홍연실 3만원 김형준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3/23	황원선	김영균 심재순	안상록 구민서
3/30	박혜선	도현만 이응남	임종윤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3/23	하재민	김영균	김용진 김진수	도현만
3/30	박승환	박용환	육윤필 이운영	이화봉

성가번호 ♪ 입당 : 123 ♪ 예물준비 : 216, 217 ♪ 영성체 : 152, 507 ♪ 파견 : 439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1.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2.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세 2,7 참조).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3. 50여 년 전에 세계가 핵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무렵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전쟁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제안하는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가톨릭 세계”뿐만 아니라 “선의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환경 악화에 당면하였기에 저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선교 쇄신을 촉구하고자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썼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고자 이 회칙을 씁니다.